



## 23개국 308개사 참가 최신 기술과 제품 선보여

대한인쇄문화협회 · 한국이앤엑스 공동 주최

급변하는 인쇄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준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제17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10)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9월 8일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과 공동 주최자인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사장을 비롯,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신우철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 한준우 킨텍스 사장, 말레이시아인쇄협회 Sunny Phang Chet Ping 회장, 몽골인쇄협회 회장 겸 국회의원 E. Myagmarpurev 회장, 중국인쇄기자제협회 Wang Jiming 매니저 등 국내외 인쇄 및 관련단체장과 히로세 데츠오 다이니폰스크린 사장, 김양평 지엠피 회장, 김상현 한국HP 전무, 김천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사장 등 출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KOTRA,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 전시장 1, 2실에서 1만8053㎡의 규모로 개최되어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인쇄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디지털인쇄 대표업체들의 최신제품과 한층 다양해진 국내의 후가공 관련 장비들, 인쇄와 IT의 융합으로 진화되고 있는 인쇄물 및 특수인쇄,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인쇄 관련 솔루션, 고품질 인쇄를 위한 다양한 특수지, 컬러 매니지먼트 제품 등 인쇄산업 전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인쇄방식과 인쇄공정의 디지털화로 기존의 인쇄영역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소재에 인쇄

주요 행사

한·중·일 국제포럼

9월 8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하는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이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기조강연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이 '한·중·일 인쇄문화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2주제로 모치다 사토시 고모리코퍼레이션 전무이사가 '일본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을, 제3주제로 중국인쇄기자재협회의 Wang Jinning 매니저가 '중국의 인쇄산업 현황과 한·중·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기성 계원예술대학 교수는 제3주제로 '한·중·일 공동개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IPES2010 세미나

◎ 9월 8일(수)

인덱스시스템과 한국이앤엑스의 주최로 '곡면 인쇄 시스템 소개'를 주제로 인디텍 김한수 대표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선과 한국이앤엑스의 주최로 '디지털 인쇄물의 포토북 및 포토앨범 제작'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기선의 김준학 대표가 강연했다.

◎ 9월 9일(목)

'한글과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캘리그래피연구소 송철의 강병인 대표가 발표하는데 이어 '디자인을 위한 실용색채'를 테마로 컬러리스트 이항주씨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관은 한국이앤엑스였다.

◎ 9월 10일(금)

RFID 발전과 미래진로(1) 세미나는 'RFID 개발현황과 인쇄기술'을 주제로 순천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규진 교수가 발표했으며 RFID 발전과 미래진로(2) 세미나는 'RFID 발전에 있어 인쇄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기계연구원의 김동수 본부장이 발표했다.

'한국 레이블 인쇄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쇄산업신문의 박중세 대표가 발표했으며 이날 세미나는 한국이앤엑스와 인쇄산업신문이 주관했다.

한편, 유료 컨퍼런스도 열려 해외의 최신동향과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좌는 다음과 같다. IDEAlliance, 표준과 G7 사양 및 실제 적용(강사 Ron Ellis, IDEAlliance GRACoL 의장), G7의 이론과 적용(강사 Don Hutcheson, Hutch Color 대표), 인쇄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강사 Supree Thongpetch, Colour Doctor, Siri Media 대표), 디자인, 인쇄, 그리고 디지털 산업에 있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국 및 ISO 표준(강사 Steve Smiley, IDEAlliance Print Properties 의장), Fogra 및 Ugra의 PSO 사양에 의한 인쇄공정표준화(강사 Yan Wei Phin, GAX 대표, Schawk Imaging 컬러 기술 컨설턴트), G7과 PSO 인증의 실제 적용과 비교(강사 송경철, 부경대학교 교수)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이번 전시회 기간에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관을 187㎡의 규모로 운영.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관에는 직지를 비롯한 선조들이 사용한 서체와 서적 등이 전시되었으며 지난해 인쇄문화축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인쇄의 최신 경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개막식 날인 9월 8일 오후 6시부터 6개국 해외바이어 100여 명을 초청, 리셉션을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인쇄기자재 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1. KIPES2010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귀빈들
2.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과정에게 인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홍우동 회장
3. 인쇄문화관 전경
4. 인쇄문화관 포토홀에서 귀빈들
5. 전시회 입장 등록을 하고 있는 인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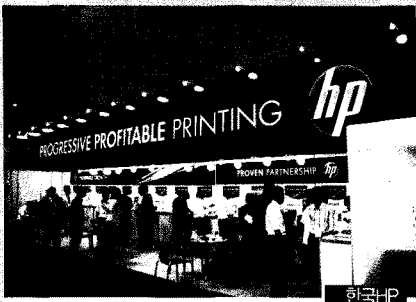


하는 장비들이 대거 선보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미래 인쇄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했다.

KIPES2010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3개국 308개사의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최근 변화하는 인쇄 트렌드와 함께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KIPES 2010 기간에는 외국인 800여명을 비롯한 4만여 명이 내방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5천억 원의 내수 상담과 600억 원 이상의 수출상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또한 9월 8일, 9일, 10일 3일간 총 4회에 걸쳐 킨텍스 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인쇄출판도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하여 보진재, 활판공방, 두성종이, 한국학술정보, 복센 등을 방문, 첨단인쇄시설을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2010KIPES는 국제전시협회(UFI)와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로부터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적 전시회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인쇄 전시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과 결실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한국HP



대중기계



대호기계









기선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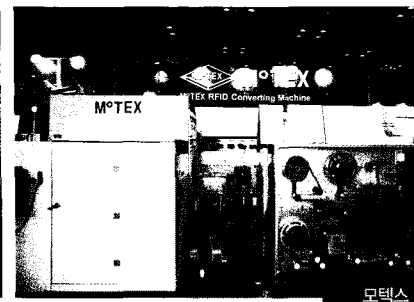


리소

 KOREA   
  PRINTING  
 INTERNATIONAL   
  MACHINERY &  
 EQUIPMENT   
  SHOW



마카시스템



모텍스



미디어머신



방성기계



선원동출



성도GL



성우애드کم



성원애드피아



세일왕행



스크린



신정테크놀로지



산기



아이피에이크론



아주하이텍



유신당

# 2010 KIPES



컨트롤유니온



지그1160



지엠피



캐논



피엠실업



피투에스



한국유니콤



현대기계



후솔

한·중·일 국제포럼 기조강연 전문

# 한·중·일 인쇄문화산업의 비전



홍 우 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 인쇄는 지식·수출산업의 전위 산업

인류역사에서 인쇄술의 발명은 서구의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고, 출판을 통한 지식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음 세대로 용이하게 전달하고, 모든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인류문명 및 지식산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물과 공기를 제외한 모든 소재에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인쇄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모든 수출상품의 설명서와 포장물이 인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전위 산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쇄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며,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환율 및 유가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로 인해 시설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전통적인 인쇄의 영역을 침식하므로써 인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쇄산업은 사양산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연간 매출이 6% 이상 증가하는 유망산업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쇄산업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도 지식산업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륙별 또는 권역별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중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호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공동발전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심체요절이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공히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발명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오프셋인쇄기 등 인쇄기 개발의 선진국으로 세계 인쇄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또 중국은 종이를 발명하여 세계 인류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신흥 인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한·중·일 3국의 인쇄관련 법과 제도

한·중·일 3국의 인쇄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겠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제4장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쇄문화산업진흥을 위해 매 5년마다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진흥계획에는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 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05년 '문자·활자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자·활자문화 진흥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해 지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자·활자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중국도 신문출판서의 주관아래 정부의 지원이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우리 3국의 인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자국의 인쇄 발전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도 인쇄물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인쇄기를 비롯한 인쇄기자재 생산도 우리 3국을 합치면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제책기와 채단기, 코팅기기, 후가공기기 등 인쇄기자재를 연간 12억 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오프셋인쇄기를 비롯한 각종 인쇄기기를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도 인쇄기를 비롯한 소모품 등을 생산하여 자국 소비는 물론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3국은 인쇄물 및 인쇄기기, 소모품 생산과 판매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우리 3국이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의 인쇄산업 현황

다음은 한국의 인쇄산업 현황을 살펴보겠다. 2009년에 한국의 인쇄업계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경기불황에 시달렸다. 경기침체에 따른 상업 인쇄물과 출판물의 감소, 관공서의 경비절감 정책에 따른 사무용 인쇄물 축소 등으로 인쇄업계의 불황은 타 업종보다 훨씬 심각했다. 인쇄기 등 시설 투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09년의 인쇄물 생산액은 9조5천3백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10인 이하 업체의 생산액이 5조5천6백억 원이었다. 현재 인쇄업체는 1만6천7백여개 사인데 2005년 이후 매년 2~3% 정도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인쇄물 수출액은 2008년 2억5천만 달러 보다 약 1백3만 달러 늘어난 2억5천1백3만 달러로 0.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쇄물 수입액은 2008년 3억6천 달러에서 약 1천7백만 달러 감소한 3억4천3백만 달러로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쇄물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이 2008년 1억3천5백만 달러에서 9천9백만 달러로 26.5%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설계도와 도안은 1천9백만 달러에서 2백38만 달러로 무려 8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7백12만 달러에서 6백46만 달러로 9.3% 감소했다.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은 1만6천 달러에서 1백83만 달러로 무려 1만1천% 증가했다. 전사물은 1천5백만 달러에서 1천5백4만 달러로 0.3% 증가했으며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도 5백46만 달러에서 47.6% 증가한 8백5만 달러를 나타냈다. 인쇄물 수입은 -4.2%를 기록했다. 수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은 2008년 2억42만 달러에서 6.1% 감소한 1억8천81만 달러를 나타냈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악보'도 각각 16.0%, 21.1%, 15.2% 감소한 1천7백96만 달러, 1천5백98만 달러, 1백5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쇄기자재 수출은 13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기는 2008년 14억5천6백만 달러에서 12억5천만 달러로 14.0% 감소했으며, 인쇄제판





한·중·일 국제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인쇄인들

용의 카메라도 4만1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로 63.4%의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인쇄기자재 수입은 25.9% 감소한 12억8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쇄기는 12억2천만 달러로 25.2%의 감소세를 보였고, '제책기계',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 '인쇄제판용의 카메라'는 각각 44.1%, 48.6%, 91.2% 감소한 1천7백만 달러, 2천1백만 달러, 9만6천 달러가 각각 수입되었다.

한편 국내 인쇄 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총 2백37건이 해외에 투자되었으며, 금액으로는 5천6백만 달러에 달한다. 해외 투자의 목적은 주 거래처인 대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해 투자된 경우와 제조 원가 상승으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생산된 인쇄 물량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목적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현황을 살펴보겠다. 현재 한국의 인쇄 교육 기관으로는 대학원 3개교, 4년제 대학 2개교, 전문대학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서 매년 약 4백여 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쇄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쇄기능사, 인쇄산업기사, 인쇄기사, 제판기사 제도가 있다.

###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교역 현황

다음은 일본 및 중국과의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교역 상황을 살펴보겠다. 최근 들어 환율의 변동으로 다소 교역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2009년에 일본에서 인쇄기와 제책기계, 현상기 등을 4억9백만 달러치 수입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제책기계 등을 8천1백만 달러치 수출했다. 중국에서는 5억1천5백만 달러 치를 수입했고, 2억9천9백만 달러 치를 수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아지는 추세다.

인쇄물의 경우는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등을 일본에서 6천4백만 달러, 중국에서 3천2백만 달러 치를 수입했다. 수출은 일본에 3천1백만 달러 치, 중국에 1천4백만 달러 치를 기록했다. 한·중·일 간의 인쇄물 및 기자재 교역은 지리적 여건과 언어의 동질성,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인쇄업계의 미래와 추진사업

다음은 한국 인쇄업계의 미래와 추진예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계 인쇄업계의 공통적 현상인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 인쇄업계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있지만

2007년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단체를 중심으로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기술에 디지털인쇄의 접목, IT산업을 인쇄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쇄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수출전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체개발과 인력양성, 각종 연구사업, 국내외에서의 인쇄홍보관 운영, 인쇄기자재전시회 개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에는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인쇄박물관 건립과 인쇄진흥재단 설립, 인쇄산업단지 조성, 친환경인쇄 인증제 도입, 국제인쇄산업전시회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중·일 인쇄업계의 공동 발전방안

다음은 한·중·일 3국간의 인쇄산업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자국에서 개최하는 인쇄기자재 전시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아이가스와 제이가스를, 중국에서는 북경국제인쇄기술전시회와 상해국제인쇄전시회, 한국에서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특수인쇄산업전시회가 대표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인쇄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3국 전시주최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연락 창구의 마련과 현재 논의 중인 아시아인쇄전시회 주최자 협의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리드해서 이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면 아시아 인쇄기자재산업, 더 나아가 세계 인쇄기자재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인쇄단체 간에는 현재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중국인쇄기술협회, 서울인쇄조합과 동경도인쇄조합이 교류협정을 맺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교류협정의 당사자들도 한·중·일 3국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맺으며

마지막으로 인쇄업 경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주지하시다시피 세계의 인쇄산업은 IT산업의 발전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쇄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인쇄의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일본의 저명한 학자

인 다나가 신이치 씨는 몇 년 전 최근의 인쇄환경을 ‘악마의 사이클’, ‘최악의 사이클’이라면서 그 원인으로 △경쟁의 격화 △가격의 하락 △가공비의 증가 △고정비의 증대 △저가의 수주 △수주 양의 감소 등을 꼽았다. 이러한 환경은 현재 일본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 인쇄산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다. 사실 인쇄업은 가격 경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산업이다. 얼핏 보기에 인쇄업은 부가가치가 꽤 높아 보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삼아도 일만 많이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인쇄업은 고가의 원재료와 생산설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작업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인쇄산업은 가격 경쟁을 기업 전략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며 차별화와 전문화, 집중화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인쇄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자에 따라, 전략에 따라, 차별화에 따라, 전문화에 따라 경영성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쇄산업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선 확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즉, 사업 영역을 잘 설정하고 시스템과 설비, 인적조직을 효율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인쇄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종이다. 대형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기업형보다는 중소기업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시설, 영업활동, 부가가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협동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화 사업이란 단일 공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복합 공정이나 종합 공정으로 바꾸거나 중대형으로 키워 영업과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의 모델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 형태, 투자 능력, 전문성, 영업력 등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협동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협동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경영의 효율성, 영업력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기업의 이윤이 증대될 것이다. 비록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쇄산업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마케팅과 협동화 사업을 통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식산업의 원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 이 자리는 ‘인쇄’ 라는 한 배를 탄 인쇄인들이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한·중·일 3국의 인쇄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